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사회와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속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거는 막스 베버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제안한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인간의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윤리 규범에 이르는 모든 분야가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영향받고

규율되었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 이르게 되면 이런 제반 영역들이 종교적인 영향력 혹은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독립해갑니다. 예컨대, 예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 혹은

종교적인 신학적 가르침들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현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종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를 규율하는 원리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규율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세계관이 서로 상호 침입하지 않는, 침투하지 않는 이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더더군다나 세속화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 중의 하나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비율, 종교가 없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뜻밖에도 종교와 관련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격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욱더 큰 갈등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양상이 세속화된 사회와 맞물려서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등장하고 그리고 종교 바깥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 갈등들을 더욱더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양상들은

크게 3가지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간 갈등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알아 온

얘기죠. 예컨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슬람교하고

이렇게 갈등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세계관이,

서로 다른 종교적 세계관이 마주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들은 익히 이제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결혼 정보 업체에서 젊은 배우자들이 젊은
처녀, 총각들이 상대편 배우자들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고려하는 요인이 뭐냐면 뜻밖에도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종교와 같은 종교인을 배우자로 맞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종교인들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앞장서서
밝힌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종교적 세계관이 다를 경우에

결혼 생활 과정에서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삶의 지혜로써 알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종교가 종교 간 갈등
말고 종교 자체가 비종교적인 세계관이 세속적 세계관과

충돌하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이 세속적인 세계관
중에서도 과학적 세계관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우주의 운행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존재하게 됐는가를 성경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교리들이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줬다고 하면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뭐 진화론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마는 이 인간들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에 관한 과학적 설명 체계들이 본격화돼서 종교적인

세계관의 설명력 혹은 설득력을 다 대체하는 현상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속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1925년에 있었던 소위 원숭이 재판, 스콥스 재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소위 이제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과학 교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돼서 미국 전역에 아주 떠들썩하게 이 스캔들이 됐던
사건인데 그게 20세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근대 이후에 세속화된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써
과학적 세계관이 소위 종교적 세계관을 대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인 거죠.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종교 내부의 갈등입니다.

이건 종교 내부의 갈등 역시 종교 간 갈등처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마녀재판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정통과 이단에 관한 종교 전통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로는 종교적 교리,

종교적 경전의 해석이라든지 믿음 혹은 신앙 활동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 종교 내부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내부의 갈등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가 처음
성립된 이후로 끊임없이 전개된 거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컨대,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산과
이로부터 종교 전통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는 예를 들어서 종교 내부의 종교적 교리,
전통적인 교리 체계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그 현대 사회의 변화 자체를 익히 내면화시킨 여성
신도들에게는 전통적인 교리의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다른 형식으로 굉장히 극렬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종교 간 갈등,

그다음에 종교와 세속화된 세계관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현대 사회가

전통적인 사회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종교를 외부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많이 생긴 이 현대 사회

현실에서 보면 이 종교가 종교와 일으키는 갈등, 혹은 종교가
종교 내부적으로 일으키는 갈등, 그다음에 종교와 종교

세속적 세계관이 만나서 일으키는 갈등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특히나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
세계관이라고 보게 되면 이 종교가 주장하는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하고 실제로 종교가 현실에서 보여주는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종교인들, 특히 세속화된 비종교인들에게 대단히
비판적인 방식으로 비쳐져서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종교가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평화라든지 공존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것들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그것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라든지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격화되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하면 현대 사회는 종교적

세계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잃고 있는 최초의 세속화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물어보게 하는 이 다종교 상황에서

더욱더 그런 현대 사회와 종교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속화된 세계에서 훨씬 더 명료하게 파악될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일으키는 갈등들이 여러 차원의 갈등들이 더욱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도대체 왜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종교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한 위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